

# 불교어린이 정보센터 '탄생'

## 어린이지도자련, 부산에 포교자료 수집...불서·시청각 시설도 갖춰

어린이 불교의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보고 제공받을 수 있는 '불교어린이 정보센터(실장 박용하)'가 부산에서 문을 연다. 3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정보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불교어린이 정보센터여서 더욱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시대에 정보수집과 자료제공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 없음을 착안, 조계종 포교원의 후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사무국 옆 25평 규모로 마련된 센터는 불교는 물론 타종교, 기타 교양도서 및 불교영상물 등을 비치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자료를

보급하고 수집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개소식을 앞두고 책자 후원을 받고 있으며 타종교 어린이 관련 서적을 비롯 책자구입,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설치 등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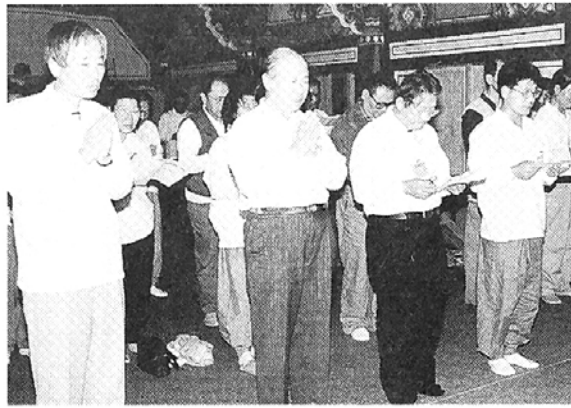
또한 현재 개설돼 있는 컴퓨터통신의 동호회망을 활용해 정보센터의 자료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열람실에 시청각 시설을 갖추 예정이다.

정보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종교의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해 어린이 포교부문에 있어서의 오류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정보센터는 활용도와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포교자료 확보, 아동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맹인포교를 위한 점자 출력기 확보, 다양한 정보교육 방법연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보센터가 단순한 정보수집과 자료제공은 물론 다양한 불교관련 자료를 개발 제공해 각 사찰의 어린이불교학교의 활성화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051)808-4569 (부산=천미희 기자)



9월20, 21일 은해사에서 열린 제8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내가먼저 합장하기 △정기법회 참석 △한글의식 생활화 등을 실천키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3월 도갑사에서 출토돼 문화재관리국과 종단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제기됐던 청동문수동자상 등 성보문화재 소유권에 대해 법률자문을 도갑사 소유라는 법률자문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확인청구, 소유물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계종 자문 양영태 변호사는 "도갑사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 일체는 도갑사가 사찰로서의 목적 구현을 위해 제작한 것인 만큼 도갑사 이외의 소유자가 있을 수 없다"며 소유권 내지 반환청구권이 도갑사에 있다는 법률해석을 내렸다.

도갑사의 소유권이 확실한 상태에서 정부의 성보문화재 반환거부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문화재를 국가소유로 귀속시키려는 행위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양 변호사의 견해.

### 도갑사출토 문수동자상 조계종, 소유권 소송준비

### "내가 먼저 합장하자" 대원회, 8차 대중결사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불교지도자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수행을 통한 새로운 위상정립으로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한국불교 대원회(이사장 박은훈)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은해사에서 1백8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8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서 이같은 결의와 함께 실천지침으로 △내가먼저 합장하기 △한글의식의 생활화 △정기법회참석하기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은해사=김원우 기자)

### 뉴스 & 뉴스

#### '감로' 상표등록 취소하라

녹차이름의 일반화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감로' '감로차'를 한 개인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 이를 취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한국차문화협회 등 차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차업계에서 보편적인 상표로 쓰이고 있는 '작설' '죽로' '육로' '용정' '철관음차' '보이차' 등이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봉은사 문화축제 '보우제'

봉은사(주지 무상)는 5일부터 10일까지(6일간)허응당 보우대사의 순교 432주기를 맞아 문화축제 '보우제'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는 △4일 추모법회 △5일 봉은불자체육대회 △4~10일 환경사진전시회, 우리농산물 바자회 △9일 소년소녀가장돕기 △10일 신앙 및 포교 체험수기 시상식, 정대보사 및 보우제 회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공창복지관 '최우수 평가'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은 부산 북구지역 최우수복지관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 북구청이 7월28일~8월19일 북구지역 7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 지역사회문제 예방·치료, 지역민 연대 매개체 역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우수평가를 받았다.

공창복지관은 최우수복지관 영예 외에도 98년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비도 우선 지급받게 됐다.

#### 불국사에 불 매장 전소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 불이문양 기념품전시판매장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1시간만에 전소됐다.

지난 9월22일 오후3시경 일어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2.5평규모의 목조기와 건물을 완전히 태웠다.

## 10월 2일은 '노인의 날'

### 올부터...교계 노인복지·포교 절실

정부가 올해 제정한 '제1회 한국 노인의 날'이 2일로 다가왔지만 교계와 사회적으로 인식이 없고 취지를 살리는 행사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포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날에 맞춰 1일 국군의 날로 하루늦춰 제정된 노인의 날은 금세기말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20년이상 늘어나면서 노령화가 20세기의 주요한 성과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라는 인식이 커가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교계에 서도 소외계층인 노인복지에 관

심을 집중하여 노인포교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계에서는 이와관련 4일 대구법원사(주지 실상)가 제8회 백고좌법회 중간행사로 지역노인 5천여명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법회에 이어 유명 국악인과 연예인 법왕사신도들로 구성된 가무단들이 노인들을 위해 흥겨운 잔치마당을 벌인다.

이에앞서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도 9월 26일 70세노인 1백60여명을 초청하여 천안 각원사와 독립기념관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 불교전용 위성방송 검토중

### 불교TV, 조계종에 타진...본·말사 연계 가능

불교TV가 조계종 총무원에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조계종 전용TV' 건립을 타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계종 전용TV' 건립안은 불교TV의 방송제작 및 위성송출 장비를 활용해 총무원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전국 본말사에 직접 송출하는 첨단 통신기술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불교TV가 위성통신 서비스 가운데 위성 고정 비디오의 일부시간을 임차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또한 이 시스템이 실행되면 총무원

등 중앙총무기관의 각종 지침을 비롯 홍보와 교육을 위성방송으로 실시, 종무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

이와 관련 불교TV 제안서는 일반 위성방송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초기 시설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12월18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에 교계 첫 공명선거협외체가 발족됐다.

대불청 대구지구, 대구불교산악회,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경북지부, 대구경찰서불교시민회

등 대구지역 5개 신행단체가 9월 23일 모임을 갖고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 '북어린이 겨울나기' 100일 결사

#### 복득기불교추진위, 겨울용품 수집운동 전개

북녘어린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운동이 7일 오후 2시 백일결사에 들어간다.

북동포돕기불교추진위(위원장 지선스님)는 9월20일 확대집행위원회를 통해 2차 백일결사 결사를 '북어린이 겨울나기'로 결정, 추진키로 했다.

'북어린이 겨울나기' 운동은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결핍에 걸려있는 북어린이들에게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겨울용품 등을 보내자는 것.

이밖에 불교추진위는 1차 백일결사 기간동안 전개한 '의약품내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가운데 △자비의 등달기 운동 △쌀 모으기 운동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월인석보등 고문서 50권 발견

#### 불갑사 천왕문보수 때

월인석보를 비롯 경전, 불교의 식집 등 보물급 고문서 50권이 전남 영광 불갑사에서 발견됐다. 9월19일 천왕문 보수공사 도중 사천왕상(지방유형문화재 159호) 복장에서 발견된 고서(古書)는 조선 세조 때(1459년) 목판본으로 간행한 월인석보 2권(전체 25권 중 권2)과 지장보살 본원경(地藏菩薩 本願經) 십지경론(十地經論) 등 경전 35권 등 불교관련 제례의식집 13권.

이밖에 발견된 고서는 발간연대가 가장 빠른 지장보살본원경(1433년판)에서 가장 늦은 묘법

연화경(1670년판)까지 2백여년간에 걸쳐 간행된 것으로 조선 초·중기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장기기자재 천도재

육신을 공양한 사후 기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제가 8일 예산 수덕사에서 개최됐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범장스님)는 '94년 각막과 시신을 기증한 김기찬씨(89세)에서부터 96년 각막을 기증한 수경스님, 97년 7월 각막을 기증한 최이유기보살까지 13명의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백제관음이 버젓이 일본에서 제작했다는 안내문과 함께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어 불의를 빚고 있다. 구다라(백제)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 불상은 6~7세기 경 백제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옮겨진 것이나 아스카시대에 일본에 온 백제의 도래인이 제작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실 안내문에 "이와 비슷한 양식의 목조불상은 중국이나 한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제작이 확실하다"고 적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도 백제관음을 '일본 불교 미술의 정수'라 소개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전시회라며 흥분하고 있다. 일본측 주

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프 모닝 대외관계실장은 전시자에게 외교적 책일에 의한 것이며 루브르는 극동고미술전문 박물관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다고 한다. 우리 문화경쟁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몇몇 민간단체들이 우리 문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에 비한다면 너무도 미약하다.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권이지만 일찍부터 해외 유명박물관에 독립

된 자국전시관을 갖췄다. 반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해외소재 문화재의 반환만 요구했지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데는 등한시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박물관에 한국관에 관심을 기울여 유물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외 박물관이나 종교·문화

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불교계는 서구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 때 불교문화를 홍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元·氣·回·復 (가을은 소진한 氣를 보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경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병중,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약용식물은 본부에는 上蔘120가지 中蔘120가지 下蔘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종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했어 있다.

**전 화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 법도산삼 (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3회)
- 자연산삼 문의산삼 (심미나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분

尊敬 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 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